2019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독일 & 네덜란드

2019. 9 ~ 10

금 천 구 의 회

이 보고서를
독일 & 네덜란드
해외비교시찰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의 장 류명기	부의장 조윤형
의 원 김경완	의 원 박찬길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용술
의 원 이경옥	의 원 윤영희
의 원 강수정	

〈 총　괄 〉

연수목적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 주변 환경과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화·노인문제·재래시장 활성화 등 우리구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입안에 기여코자 함.

연수기간 : 2019. 9. 25.(수) ~ 10. 2.(수) 6박 8일

연수장소 : 독일, 네덜란드(에센, 뒤셀도르프, 헤이그, 암스테르담 등)

연수대상 : 13명

- 금천구의회 의원(9명)

  류명기(의장-단장), 조윤형(부의장),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윤영희, 강수정

- 의회사무국 수행직원(4명)

  김영동(의회사무국장), 김하영, 김미정, 김정용

연수결과

- 독일, 네덜란드 두 개의 선진도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성공노하우를 벤치마킹
-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시스템 관련 우리나라와 선진도시간 비교고찰
-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및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건축과 정부정책 고찰
- 에너지 협동조합 등 마을자치의 필요성과 운영노하우 공유 등

보고서 작성 : 연수대상 의원

목 차

Ⅰ. 연수개요 ---------- 4

Ⅱ. 연수일정 ---------- 5

Ⅲ. 연수참가자 ---------- 6

Ⅳ. 연수 세부내용

연수도시 ---------- 7

방문기관 및 주요시찰내용 ---------- 19

주요시설 방문 현황 ---------- 32

주요시설 외관 참관 ---------- 43

문화탐방 ---------- 46

Ⅴ. 연수총평 ---------- 50

Ⅰ 연수개요

연수목적

-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 주변환경과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모델, 우수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들의 국제적 의정역량을 강화
- 지역특성화·노인문제·재래시장 활성화 등 우리구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입안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연수기간 : 2019. 9. 25.(수) ~ 10. 2.(수) / 6박 8일

장 소 : 독일, 네덜란드

연수대상 : 13명(의원 9명, 직원 4명)

주요내용

- 해외 도시의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공공건축 사례 탐구
- 에너지 협동조합, 풍차마을 등 마을자치의 선진경영 노하우 벤치마킹
- 각 나라별 재래시장 운영현황을 탐방, 금천구 재래시장과 비교분석, 시장 활성화 방안 및 관광과의 연계방안 탐구
- 우수한 사회보장시스템(노인정책), 친환경 교통정책 등 우수 정책사례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

Ⅱ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 요 방 문 일 정
1일차 9/25 (수)	구 의 회 인천공항	관용차량 KE905	09:50 12:50 17:40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국(소요시간 11시간 50분) 프랑크푸르트 도착
2일차 9/26 (목)	하이델 베르크	전용차량	10:00 13:30 15:00	■ [협동조합]**헤센주 중앙에너지 협동조합 방문** ■ [지역활성화]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 탐방 ■ [사회복지시설]**AWO 요양시설 방문**
3일차 9/27 (금)	하이델 베르크 /쾰른	전용차량	09:30 11:30 16:00	■ [시찰]하이델베르크 문화시찰(고성 방문) ■ [도시건축]**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 참관** ■ [도심녹지]**에센 졸페라인 현장시찰**
4일차 9/28 (토)	뒤스부르크 /헤이그	전용차량	08:30 15:30	■ [도시재생·도심녹지]**뒤스부르크 환경공원 방문** ■ [시찰]**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5일차 9/29 (일)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09:30 10:30 12:00	■ [도시건축]**169 클뤼스하우즌 발리스블록 참관** ■ [시찰]**에라스무스대교 및 로트르담 탐방** ■ [도시건축·지역활성화]**로테르담 마르크탈 방문**
6일차 9/30 (월)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10:00 14:00 17:00	■ [도시재생]**NDSM Amsterdam(문화·예술중심지) 현장시찰** ■ [환경]네덜란드 문화시찰(풍차마을 잔서스한스 참관) ■ [도시건축]**큐브하우스 외관 참관**
7일차 10/1 (화)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KE926	10:00 13:30 21:20	■ [일자리정책]**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방문** ■ [교통정책]네덜란드 자전거/운하활용 등 교통문화 벤치마킹 암스테르담 공항출발(소요시간 10시간 45분)
8일차 10/2 (수)			15:05	인천도착

Ⅲ 연수참가자

참여인원 : 13명(의원 9명, 수행직원 4명)

구분	소관상임위	직위	성명	과 제
구의원		의장	류명기	의원 해외 비교시찰 기획 및 운영 총괄
	행정재경위원회	부의장	조윤형	
		행정재경부위원장	김용술	·문화·관광 분야 자료수집 ·협동조합 등 마을자치 분야 자료수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료수집
		의원	박찬길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장	김경완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 분야 자료수집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분야 자료수집 ·친환경 정책 등 도시환경 분야 자료수집
		의원	강수정	
		의원	김영섭	
		의회운영위원장	이경옥	
		의원	윤영희	
수행직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영동	행사지원 총괄
		의정팀장	김하영	의원보좌 및 상임위원회별 자료수집
		주무관	김미정	의원보좌 및 예산집행 및 정산
		주무관	김정용	의원보좌, 사진촬영

Ⅳ 연수세부내용

1. 방문국가 및 도시현황

독일 개황[1]

1) 일 반

국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인구	약 8,218만 명(2016.1월 현재) / ㎢당 230명
수도	베를린(인구 352만 명, 2016.1월 현재)
면적	357,386㎢(한반도의 약 1.6배)
의회	양원제(연방하원 : 630석 / 연방상원 : 69석)
민족	게르만족(91.5%), 터키계(2.4%), 이탈리아계(0.7%), 기타 (5.4%)
언어	독일어
종교	신교 27%, 구교 29%, 이슬람 3%, 무종교 36%
국경일	10.3(1990년 동 ·서독 통일 기념일)
주요 기념일	정부 수립일(기본법 제정·공포) : 1949.5.23 / UN 가입일 : 1973.9.18
화폐단위	1유로 = 1,343원(2019.10.10. 현재)
기후	4계절 구분, 온화 ·다습(연평균 기온 : 11℃)

2) 정 치 · 경 제

국가형태	연방공화제(16개주)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사민당)
주요인사	총리 : 앙겔라 메르켈(기민당) / 외교장관 : 하이코 마스(사민당)

1) 독일 개황(2017년 현재), 출처 : 외교부

의회		총 709석, '17.9.24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 246석, 사민당(SPD) 153석, 좌파당(Linke) 69석 녹색당(Grune) 67석, 자민당(FDP) 80석, 독일대안당(AfD) 94석
경제지표	GDP	약 3조 4,134억 달러(1인당 GDP : 약 42,326달러)
	교역	약 2조 3,950억 달러(수출 : 1조 3,400억 달러 / 수입 : 1조 550억 달러) ※ 세계 제3위 수출국이자 세계 제2위 경상흑자국(2016년 기준)
	경제성장율	3.7%(2006) ▶ 3.3%(2007) ▶ 1.1%(2008) ▶ -5.1%(2009) ▶ 4.2%(2010) ▶ 3.0%(2011) ▶ 0.7%(2012) ▶ 0.4%(2013) ▶ 1.6%(2014) ▶ 1,7%(2015) ▶ 1.9%(2016)
	기타	물가상승률 : 0.5%, 실업률 : 4.0%
수출입현황		- 수출 : 93.7억불(승용차, 축전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 : 208.5억불(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투자현황 (2018년기준)		- 우리의 대독투자 : 약 58억 달러(누적액 기준) - 독일의 대한투자 : 약 137억 달러(누적액 기준)

3) 한-독 관계

체결협정 및 주요인사 방문현황	- **(1883. 11. 26.)** 우호통상항해조약(Freundschafts-, Handels- und Schifffahrtsvertrag) 체결 - **(1955. 12. 1.)** 상호 국가 승인 및 외교관계 재개 - **(1958. 8. 1.)** 양국 정부,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 **(2015. 10.)** Gauck 대통령 방한 - **(2016. 2.)** 윤병세 외교장관 방독(뮌헨안보회의) - **(2016. 4.)** Tillich 연방상원의장 - **(2016. 9.)** Modrow 전 동독 총리 - **(2017. 2.)** 윤병세 외교장관 방독(뮌헨안보회의) - **(2017. 7.)** 문재인 대통령 방독 - **(2017. 9.)** 슈뢰더 전 총리(자서전 출간 계기) - **(2018. 2.)**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공식방한) - **(2018. 7.)** 마스 외교장관 - **(2019. 2.)** 강경화 외교장관(뮌헨안보회의)
교민	약 4만 170명

독일 뒤스부르크 (Duisburg)[2]

위치·면적		- 북위 51° 26', 동위 6° 45' - 면적 232.8㎢ - 해발 33m - 라인 강과 루르 강의 합류점에 위치
도시특징 및 역사	- 중세 시대 신성로마제국의 자유제국도시였으며 한자동맹에 가입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 - 16세기에 클레베 공작령의 후원으로 지리학자 메르카토르가 이곳에서 활약하며 지도를 제작하였다. - 19세기에 산업화와 교통의 발전으로 일대의 중요한 공업 도시가 되었다.	
행정	- 뒤스부르크시 시장 (Lord Mayor) : Sören Link (1976년 6월 28일 生) - 뒤스부르크시는 7개 자치단체(Municipalities)로 구성된다.	
기후 등 자연특성	- 평균 온도 : 10.9°C(최고온도 24°C / 최저온도 1°C) - 강수량 : 710mm - 사계절을 보이는 온대기후에 속한다. - 하이델베르크 시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를 가진 도시이다. - 고온 시 도시기후 특징을 보이면서 북해와 대서양 저기압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겨울 기후가 온화한 편이다.	
인구	- 총인구 : 498,590명(2018년 12월 기준) - 인구 밀도 : 2,142명 / km^2	
산업·경제	- 루르 공업지대의 중심적인 도시로 철강, 물류가 주력 산업이다. - 유럽 최대의 철강도시로 주요 제품으로 선철, 강철, 중공업기계 등이 있다. - 수륙교통의 중심지로 라인-헤르네 운하 – 도르트문트 – 엠스 운하로 독일 북부의 여러 항구와 연결되는 유럽 제일의 물류망이 구축되었다.	
문화·관광	- 뒤스부르크 극장 : 1912년에 설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극장 - 내항 축제 : 세계 최대 규모의 용선 축제 - MSV 뒤스부르크 (뒤스부르크 시의 축구 클럽팀)	
국제교류	- 자매 및 우호도시 목록 ● 영국 : 포츠머스 ● 러시아 : 페름 ● 중국 : 우한 ● 리투아니아 : 빌뉴스 ● 터키 : 가지엔테프 ● 토고 : 로메 ● 미국 : 포트 로더데일 ● 프랑스 : 칼레 ● 온두라스 : 산페드로술라	

2) 위키피디아

프랑크푸르트 (Frankfurt)[3]

위치·면적		- 북위 50° 7', 동위 8° 41' - 면적 248.31㎢ - 해발 112m - 라인 지구대 북부 라인강의 지류인 미안강 연변에 위치
도시특징 및 역사	- 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구(舊) 시가는 12세기에 건설됐다. - 19세기 중엽 이후 외각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발전하였다. -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시가지가 크게 파괴되었으나 독일 경제 기적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게 되면서 시가지를 다시 정비하였다. - 프랑크푸르트 대학교를 비롯한 문화 교육 시설이 다수 위치한다. - 독일 내 지보적 민주개혁세력의 수도로 간혹 폭력사태와 시위가 발생해서 국내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 남부 지역에 독일 내 가장 큰 도시숲인 프랑크푸르트 숲이 있다.	
행정	- 프랑크푸르트시 시장(Mayor) : Peter Feldmann(1958년 10월 7일 生) - 프랑크푸르트 시는 16개 지역 지구 예하의 46개 도시 지구로 구성된다.	
기후 등 자연특성	- 평균 온도 : 10.6℃(최고 온도 25.5℃, 최저 온도 -1.1℃) - 강수량 : 630mm - 평균 습도 : 76.6% - 여름에는 낮 평균 기온이 25℃를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습도가 낮아 덥지는 않으며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선선하다.	
인구	- 총인구 : 753,056명(2018년 12월 기준) - 인구 밀도 : 3,033명 / km^2 - 독일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 도시 인구의 51.2%가 이민자 출신이다.	

3) 나무위키, 위키피디아(국문, 영문), 두산백과, 프랑크푸르트 공식 홈페이지

산업·경제	- 독일의 경제·금융의 중심지로 주식·상품거래소가 있다. - 항공·철도·자동차 교통의 요지이다. - 공업으로는 염로·약품·광학·전자기기·기계 등의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 2년마다 열리는 자동차 박람회 이외에도 매년 서적, 기계공구, 생활용품, 액세서리 등의 국제박람회가 유명하다. - 사과와인과 소시지가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 삼성그룹, 현대그룹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있다.
문화·관광	- 구시가지(Altstadt)의 80년대 초 복원한 중세, 르네상스 풍의 시청사, 그 주위의 유서 깊은 저택들이 유명하다. 지금도 구시가지의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괴테 숙모의 집을 복원한다고 한다. - 마인 강 건너편에 슈테델 미술관이 유명하다. 파리, 런던의 우주급 미술관보다는 작지만, 의외로 중세부터 현대 미술까지의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단지 입장료가 비싸다. 성인 입장료가 14유로. 학생은 12유로니 학생증을 지참하자! 루브르 오르셰보다는 싸다. -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 다음으로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젠켄베르크 자연사 박물관도 명소중 하나다. 티라노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이구아노돈, 오비랍토르,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파라사우롤로푸스, 플라테오사우루스 등등 유명한 공룡 화석들을 전시, 소장하고 있는데 공룡 덕후라면 꼭 가볼만한 곳 중 하나다. - 시내 중앙의 바로크풍의 건물인 Hauptwache(중앙경비초소)를 기준으로 스타일이 다르다. 중앙경비초소의 뒷편의 괴테거리는 루이뷔통, 지미추, 프라다, 에르메스 등의 고급 부티크들이 있다. 중앙경비초소의 앞편에는 백화점, H&M, 자라, 풋락커, 에스프리처럼 현대적인 가게들이 있다.
국제교류	- 한국 : 인천시(2013 우호협력의향서 체결) - 자매 및 우호도시 목록 ● 프랑스 : 리옹, 되이라바르 ● 영국 : 버밍엄 ● 이탈리아 : 밀라노 ● 중국 : 광저우 ● 아랍에미레이트 : 두바이 ● 헝가리 : 부다페스트 ● 체코 : 프라하 ● 니카라과 : 그라나다 ● 폴란드 : 크라쿠프 ● 터키 : 에스키셰히르 주 ● 이스라엘 : 텔 아비브 ● 캐나다 : 토론토 ● 일본 : 요코하마 ● 이집트 : 카이로 ● 미국 : 필라델피아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4]

<table>
<tr><td>위치·면적</td><td>
</td><td>- 북위 49° 25', 동위 8° 43′
- 면적 108.84㎢
- 해발 114m
- 라인-네카어강 연안에 위치</td></tr>
<tr><td>도시특징
및 역사</td><td colspan="2">- 12세기에 처음 문헌에 등장하였다.
- 1386년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는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으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보루가 되었다.
- 30년 전쟁 (1618-1648)과 프랑스 군의 침략으로 도시 건물들이 다수 파괴되었다가 18세기 대대적인 재건을 계기로 명성을 회복하였다.
- 1850년 프러시아 제국에 합병된다.
- 1952년 이후로 유럽 주둔 미군 총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다.</td></tr>
<tr><td>행정</td><td colspan="2">- 하이델베르크시 시장 (Mayor) : Prof. Dr. Eckart Würzner(1961년 10월 10일 生)
- 하이델베르크 시는 총 15개 행정구로 나누어진다.</td></tr>
<tr><td>기후 등
자연특성</td><td colspan="2">- 평균 온도 : 10.8°C(최고 온도 25.1°C, 최저 온도 -1.4°C)
- 강수량 : 806mm
- 평균 습도 : 72.8%
-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 꼽힌다.
- 아몬드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이 중부 유럽 기후에서 잘 자라지 않는 나무들이 다수 심어져 있는 편이다.</td></tr>
<tr><td>인구</td><td colspan="2">- 총인구 : 160,335명(2018년 12월 기준)
- 인구 밀도 : 1,473명 / km^2</td></tr>
<tr><td>산업·경제</td><td colspan="2">- 산업구조 : 서비스(83.8%) 제조업(16.1%)
- 총 GDP : 839억 유로
- 1인당 GDP : 54,079 유로(독일 평균 : 38,180 유로)
- 실업률 : 3.6%(2018년 12월 기준)
- 서비스 부문에서 의료, 관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하이데벨크성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지역 내 가장 고용규모가 큰 기관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총 1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기계, 정밀기기, 피혁, 담배, 목제품 등의 제조업도 활발하다.</td></tr>
<tr><td>문화·관광</td><td colspan="2">- 하이델베르크 카를 테오도르 다리 : 독일 하이델베르크. 구 시가에서 철학자의 길을 연결해주는 옛 다리
- 하이델베르크 성 : 1225년 축조된 르네상스 풍의 성
- 철학자의 길 : 독일 유명 시인들의 명상 장소
- 하이델베르크 구교</td></tr>
<tr><td>국제교류</td><td colspan="2">- 자매 및 우호도시 목록
• 프랑스 : 몽펠리에 • 영국 : 캠브리지 • 이스라엘 : 레호보트
• 우크라이나: 심페로폴 • 일본 : 구마모토 시 • 중국 : 항저우
• 미국 : 팔로알토</td></tr>
</table>

4) 위키피디아(영문, 독문), 두산백과, 하이델베르크 공식 홈페이지

네덜란드 개황[5]

1) 일 반

국명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인구	1,708만명(2017.1)
수도	암스테르담 ※ 헤이그는 정부소재지
면적	면 적 : 41,526㎢ (내해수면 제외시 : 37,305㎢) ※ 네덜란드왕국은 △구주 본토와 3개 도서 (Bonaire, St. Eustatius 및 Saba) △ 3개 자치령 (Curacao, St. Maarten, Aruba)으로 구성
의회	양원제(상원의원 : 임기 4년, 하원의원 : 임기 4년)
민족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언어	네덜란드어(영어 통용)
종교	카톨릭(24%), 네덜란드 개신교(15%), 기타(11%),비종교(50%)
국경일	4.27(국왕의 날)
주요 기념일	독립기념일 : 5.5
화폐단위	Gulden (1 Gulden = 100 Cents)
기후	온난다습한 해양성기후(겨울평균 1~4℃, 여름평균 13~22℃)

2) 정 치 · 경 제

국가형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내각 : 자민당,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연합, D-66 연립)
국가원수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2013.4.30 즉위)
주요인사	총리 : 마크 루터(Mark Rutte, 자민당) / 외교장관 : 스테프 블록(Stef Blok, 자민당)

5) 네덜란드 개황(2019년 현재), 출처 : 외교부

의회		양원제(총 225석) : 상원 75명(자민당 12석, 민주포럼 12석, 기민당 9석, 녹색당 8석, D-66당 7석, 노동당 6석, 자유당 5석 등) / 하원 150명(자민당 33석, 자유당 20석, D-66 19석, 기민당 19석, 녹색당 14석, 사회당 14석, 노동당 9석 등)('17.3.15 총선 결과)
경제지표	GDP	8,262억불(1인당 GDP : 약 48,555달러) 2017년 기준
	교역	10,855억불(수출 : 5,771억, 수입 : 5,084억)
	경제성장율	2006년 3.0%, 2007년 3.9%, 2008년 1.9%, 2009년 –3.7%, 2010년 1.5%, 2012년 -1.2%, 2013년 –0.8%, 2014년 1.4%, 2016년 2.2%, 2017년 2.9% (2017년)
	기타	실업률 : 3.4%
수출입현황		- 수출 : 47.75억불(제트유 및 등유, 발전기, 합금철, 건설중장비) 2018년 기준 - 수입 : 68.97억불(반도체 제조용 장비, 나프타, 반도체제조용 장비부품, 집적회로반도체)
투자현황 (2018년기준)		- 우리의 대네덜란드투자 : 744건, 156억불 - 네덜란드의 대한국투자 : 1,687건, 298억불

3) 한-네 관계

체결협정 및 주요인사 방문현황	- **(1949. 7.)** 대한민국 승인 - **(1950. 7.)** 한국전 참전 - **(1961. 4. 4.)** 외교관계 수립 - **(1968. 12. 24.)** 주한네덜란드대사관 개설 - **(1969. 10. 15.)** 주네덜란드대사관 개설 - **(2015. 4.)** Schultz van Haegen 인프라, 환경부장관 - **(2015. 4.)** 윤병세 외교장관 - **(2016. 9.)** Mark Rutte 총리 - **(2018. 2.)** 빌렘-알렉산더 국왕 내외, 루터 총리(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 **(2018. 12.)** 한-네 정상회담(G20 계기)
교민	약 2,966명(2017년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 (Rotterdam)[6]

위치·면적		- 북위 51° 55′ 00″ 동경 4° 30′ 00″ - 면적 325.79㎢ - 해발 0m - 네덜란드 South Holland Province에 위치. 경제수도 암스테르담에서 75km, 정치수도 헤이그 25km에 위치. 벨기에 안트베르픈, 브러셀, 독일의 드셀도르프, 퀼른과 자동차 한시간 거리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도시특징 및 역사	- 유럽 최대의 항구이자 유럽의 관문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유럽에서 몇 안되는 현대 건축 박람회장 - 지난 수년간 도시인구는 매년 7%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안에서 제일 일자리수가 많으므로 젊은 세대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15-24세 13.5%, 25-45세 30,4%, 46-65세 24.6%) - 특히 지난 10년간 시내안에 고급 복합 고층빌딩들로 재개발 되면서 과거의 공해산업이 많이 들어서 있는 항구도시에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을 통해서 스마트한 국제도시로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에 주거 선호도도 많이 올라가서 주택가격도 같이 올랐다. - 최초에는 900년경부터 있었던 로테 끝자락의 촌락으로 시작되었고, 도시 이름의 유래가 된 로테 천의 댐이 1260년대에 건설되는 등 성장해 나가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맞는다. 이 때 네덜란드 점령을 노리던 나치 독일의 공습을 받아 도시가 거의 전부 파괴되는 등 시련을 겪었으나 전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도시가 재건된다. 때문에 암스테르담과는 다르게 도시 전체가 현대건축으로 지어져 깔끔한 느낌을 준다.	
행정	- 로테르담시 시장 : 아흐메드 아부탈래브(Ahmed Aboutalleb) (1961년 8월 29일 生) ※ 시장은 2009.1월 로테르담시장으로 임명, 2015.1월 임기 6년의 시장직을 재임 - 시 행정조직체로서 네덜란드의 지방자치 도시는 시장과 그 크기에 따라 5명에서 10명 정도의 wethouder(alderman)들이 각 행정업무 부처를 지휘한다.(우리나라에서 국장과 비슷한 직위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지방선거후 표결과에 비례해서 각 정당들이 추천하는 인물들이 4년간 근무한다.)	

6) 나무위키, 위키피디아(국문)

기후 등 자연특성	- 평균 온도 : 마린-온화한 겨울 기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온화한 건조 시즌, 따뜻한 여름 모든 달의 평균 온도 22°C(72°F) 보다 낮습니다. 평균 온도가 50°F(10°C)에 적어도 4개월 - 로테르담은 유럽 최고의 컨테이너 항구이다. 이 항구에서 바지선, 기차, 도로를 이용해서 유럽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물류망이 잘 짜여 있어서 컨테이너 항구로써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 약 64만 5천명(2018년). 로테르담에는 174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제도시임.
산업·경제	- 항구에 관련된 2차, 3차 산업을 비롯하여, 로테르담에는 54,670개의 회사(사업체)들이 주재하고 있다.
문화·관광	- 도시에 각종 분야의 박물관이 많고, 특히 보이만스 반 뵈닝겐 시립박물관에는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한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출신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철학자 에라스무스의 출생지로서 생가가 보존되어 있음. - 영화 쪽으로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가 유명하다. 1972년 시작되어 매년 1월말에 개최된다. 규모 면에서 칸느, 베를린 영화제 등에 비견된다. - 시내 중심가 Willemsplein에서 출발해서 로테르담시내와 항구시설의 일부분을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관광(Spido Terminal). - 로테르담 시내에 위치한 각종 유명 건축물들 (Market Hall, The Rotterdam, Cubic House, Pencil House, Erasmus bridge)이 있음.
국제교류	- 자매 및 우호도시 목록 ● 룩셈부르크 : 에슈쉬르알제트 ● 독일 : 쾰른 ● 프랑스 : 릴 ● 벨기에 : 리에주 ● 이탈리아 : 토리노 ● 불가리아 : 부르가스 ● 루마니아 :콘스탄차 ● 폴란드 : 그단스크 ● 중국 : 항저우 시 ● 쿠바 : 아바나 ● 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 ● 미국 : 볼티모어 ● 독일 : 드레스덴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msterdam)[7]

위치·면적		- 북위 51° 55′ 00″ 동경 4° 30′ 00″ - 면적 219㎢ - 해발 2m -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서부의 노르트홀란트주 (North Holland)에 위치
도시특징 및 역사	- 유럽의 대규모 광역도시권 중의 하나인 란스타드(Ranstad)의 북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 - 8개의 자치구로 행정 구역이 나뉘어져 있음. 이민자들의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 암스테르담은 약 17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인구로 구성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성이 높은 도시로 손꼽힘. - 관광 및 운하로 유명하며, 마약 합법화와 홍등가로 유명한 환락의 도시 - 이 도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럽 대륙의 도로.철도.항공로의 요지로서 카엘엠(KLM:네덜란드 항공사)의 본거지인 스히폴공항이 있으며, 유럽 육상교통의 한 거점으로서 다양한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음.	
행정	- 쾰른시 시장(Lord Mayor) : Henriette Reker (1956년 12월 9일 生) - 암스테르담은 8개의 큰 행정구역(Deelgemeente, 데엘헤메엔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7개는 특별히 자치구역(Stadsdeel, 슈타츠데엘)이다.	
기후 등 자연특성	- 암스테르담의 서쪽에는 북해가 위치해 있어 북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 암스테르담의 겨울은 열섬 현상과 바다와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온도가 -5℃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 심한 추위는 없는 편이다. - 여름은 보통 온난하고 드물게 더운 날이 있다. 8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2.1℃이고, 30℃를 넘는 날은 2~3일 정도이다. 일년중 187일 정도 눈·비가 내리고 연간 평균 915mm의 강수가 측정된다.	

7) 나무위키, 위키피디아(국문), 암스테르담시 홈페이지

인구	- 인구 : 767,849명(2010년) - 인구밀도 : 3,506명 / km^2 - 광역인구 : 2,158,372명
산업·경제	- 암스테르담은 약 219.4km^2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컨설팅, 정보기술, 의학기술, 통신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업과 관광업 또한 경제발전의 중심산업이 되고 있음. - 국립은행을 비롯하여 민간 주요은행 본점의 소재지. 세계 500대 기업 중 ING나 필립스(Philips)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 중 7개를 포함하여 많은 네덜란드 기업의 본사가 입지해 있으며 유럽의 옵션거래소, 유럽의 증권거래소의 네덜란드 지사들이 모여 있음.
문화·관광	- 도시의 명소로 1885년에 개관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Rijksmuseum),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을 비롯한 40여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으며, 안네의 일기의 저자 안네 프랑크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가족과 함께 은신했던 안네 프랑크의 집(Anne Frank Huis)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 - 남쪽의 담 광장에는 오래된 왕궁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국왕의 즉위식을 행하는 신교회(新敎會) 등이 있고, 동남쪽에는 렘브란트 판 레인(1639~1658년 거주)의 집이 보존되어 있음. - 200여개 이상의 라이브 공연장소가 있으며 세계적인 왕립 콘서트허바우 관현악단(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의 본거지로서 발레와 오페라공연이 다양하게 열림.
국제교류	- 자매 및 우호도시 목록 • 그리스 : 아테네 • 중국 : 베이징 • 벨기에 : 브뤼셀 • 이집트 : 카이로 • 네덜란드 : Delfzijl • 터키 : 이스탄불 • 모로코 : 나도르 • 우크라이나 : 키예프 • 덴마크 : 코펜하겐 • 미국 : 로스앤젤레스 • 니카라과 : 마나과 • 영국 : 맨체스터 • 키프로스 : 니코시아 • 프랑스 : 파리 • 체코 : 프라하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사라예보 • 스웨덴 : 스톡홀름 • 캐나다 : 토론토 • 캐나다 : 밴쿠버

2. 방문기관 및 주요 시찰내용

방문국	방문도시	방문기관	일정	주요 시찰내용
독일	하이델베르크	헤센주 중앙에너지 협동조합	9/26(목) 10:00~12:00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노하우 공유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	9/26(목) 13:30~14:30	우리 관내 시장과 비교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
		AWO 요양시설	9/26(목) 15:00~17:00	선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노인요양원 운영사례를 통해 공유, 실버산업 노하우 벤치마킹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고성	9/27(금) 9:30~10:30	독일 문화시찰,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	9/27(금) 11:30~12:00	세계 최대규모의 Passive House 단지를 참관, 친환경 에너지대책 활용방안을 탐구
	에센	에센 졸페라인	9/27(금) 16:00~18:00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를 탐구,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 공유
	뒤스부르크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9/28(토) 08:30~10:30	환경을 배려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혁신적인 공공디자인 벤치마킹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9/28(토) 15:30~16:30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하신 이준열사의 뜻을 기리고 을사늑약의 과거를 돌아보며 애국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음
	로테르담	169 클뤼스하우즌 발리스블록	9/29(일) 09:30~10:30	로테르담시의 파격적인 제안(1유로로 집을 제공, 리모델링은 본인이 직접)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된 사례 탐구
		로테르담 마르크탈	9/29(일) 12:00~14:00	전통시장과 아파트, 레스토랑 복합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방문,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관광지 개발 방안 모색
	암스테르담	NDSM Amsterdam	9/30(월) 10:00~11:30	(구)조선소 폐허지를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사례 벤치마킹
		잔서스한스	9/30(월) 14:00~16:00	네덜란드 문화시찰, 풍차마을 컨셉을 통한 마을 관광수익 확보 방안 연구
		큐브하우스	9/30(월) 17:00~17:30	보행자용 다리위에 모듈형으로 큐브하우스를 지어, 쇼하우스를 마련,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건축사례 탐구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10/1(화) 10:00~12:00	첨단기술 및 과학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상승효과를 도모하는 사례 벤치마킹
		네덜란드 도심/수변녹지 탐방	10/1(화) 13:30~16:00	네덜란드 자전거/운하활용 등 교통문화 벤치마킹

헤센주 중앙에너지 협동조합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9. 26.(목) 10:00 ~ 12:00
- 방문장소 : 중앙헤센주 에너지 협동조합
- 참 석 자 : 디렉터 Diethardt stamm외 2명, 의원 9명
- 방문목적 :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노하우 공유
- 방문내용
  - 환 영 사 : 디렉터 Diethardt stamm
  - 방 문 사 : 류명기 의장
  - 내 용 : 방문기관 현황 소개 및 질의응답

주요브리핑 내용

- 기관현황
  - 설 립 : 2011. 4. 30. [33명 회원이 설립]
    ※ 설립당시 6명 시장, 환경에너지 관련 단체 대표, 지역은행대표, 풍력·태양에너지 관련 전문가 등 참여
  - 가 입 : 최소 € 100의 지분을 취득하여 협동 회원이 되며, 회원은 협동조합의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취득하여 전체 개발에 재정적으로 관여. 매년 연례 총회는 사업 지분에 대한 배당 금액을 결정함.
  - 기능・역할
    - MiEG는이 지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저장, 에너지 효율 측정 및 전기 이동성 확대에 기여
    - 활동 분야는 모든 형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Co2 환원,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컨설팅, 전기차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전달을 위한 로컬 네트워크의 운영

-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류명기 의장

-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방식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A. 디렉터 Diethardt stamm

- 독일에는 이와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900여개가 있는데 크기는 천차만별로 작은 곳은 온수정도만 가능한 정도이나 이곳 헤센주 중앙에너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총600여명으로 매우 규모가 큰 편

-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방식은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 곳을 활용 주민이 낸 돈으로 큰 태양광을 설치, 여기에서 발생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회사에 판다. 독일법에 따라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파는 전기는 전기회사에서 비싸게 사주고, 지역주민들은 전기사용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른 예로, 이곳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이 있는데, 풍력발전소 1개 설치에는 500만 유로의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다른 도시와 연합해서 설치를 함. 주민들이 20년동안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연이율 2.5% 이윤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이득을 봄.
  이와 같은 원리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 주민들은 모두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함. 또한 조합원들은 재생에너지의 효과 및 장점 등을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예를 들어 유치원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스크린을 통해 매일 절약하는 에너지에 대한 실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솔라파워 장난감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유아기부터 심어주는 등의 교육을 실시함

- 독일정부는 법적으로도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이외에도 가스, 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연구중에 있다. 또한 헤센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 부서가 있는데, 전문가 5명이 전담하여 에너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무료상영 영화도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함

Q. 김영섭 의원

- 태양열전기판에서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
- 태양열 반사열로 주위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태양열 전지판은 수명이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명이 다된 전지판의 처리방법은?

A. 디렉터 Diethardt stamm

- 먼저 태양열 전지판의 전자파는 인체에 미칠 정도의 강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태양열 반사열은 엄청 크게 설치하지 않는 한 주위온도 상승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마지막으로 태양열 전지판의 수명은 40년인데, 수명이 다되면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여 처리함.

Q. 윤영희 의원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화력발전 등이 주된 에너지원인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A. 디렉터 Diethardt stamm

- 독일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40%, 원자력에너지 15%, 화력 45% 정도임

Q. 김경완 의원

-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수는?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추진하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디렉터 Diethardt stamm

-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수는 900여개 정도임. 최근에는 '이그라 포토굴타이' 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이 태양을 많이 받으면 농작물이 타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도 생기고, 농작물도 보호하는 것임.

Q. 박찬길 의원

- 한국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아 태양열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며, 나무를 베어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다면 나무가 소실되어 생기는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디렉터 Diethardt stamm

- 한국은 산이 많아 풍력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나무를 베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은,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나무를 베는 단점이 풍력을 안할 때 발생하는 문제보다 덜하다고 생각됨

<헤센주 에너지협동조합 관련자 간담회>

<헤센주 중앙에너지 협동조합 현장시찰>

AWO 요양시설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9. 26.(목) 15:00 ~ 17:00
- 방문장소 : AWO 요양시설
- 참 석 자 :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외 1명, 의원9명
- 방문목적 : 독일의 선진화된 노인복지정책을 노인요양원 운영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노인 치료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 방문내용
  - 환 영 사 :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
  - 방 문 사 : 류명기 의장
  - 내 용 : 방문기관 현황 소개 및 질의응답

주요브리핑 내용

- 기관현황
  - AWO라는 요양시설은 공익단체(사회복지협회)에서 운영을 하며, 독일 전역에 있음

- 현재 102명의 환자가 입주하고 있으며, 병증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나, 식물인간 상태인 어르신이 15명이 계심
- 직원이 130명으로 입주한 환자(어르신)보다 직원이 더 많은데 이유는 치매환자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르신 케어를 위해서임
-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통해 환자들은 24시간 케어를 하는데, 요리도 직접해서 드리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함
- 요양원의 시설 구성은 침실 1인 1실이 대부분, 1층 식당, 각층마다 간식,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개인별 케어 위주로 운영, 산책・운동・재활 프로그램 진행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류명기 의장

-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인데, 한국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이 20%로 초고령화 사회임. 독일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40년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독일 전체인구 중 노인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은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등급을 판단 후 요양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등급을 나누어 요양시설에 입주하게 되는지?

A.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

- 독일은 65세이상 노인비중이 현재 14%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사회임.

- 요양보험 등급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독일에는 건강과 요양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요양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음.

- 요양서비스를 받고자하면 건강보험의 장기요양운영센터(MDK)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은 1 ~ 5등급으로 1등급의 경우 재가형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상태가 나쁨.

- 2 ~ 5등급의 경우 요양시설 입주 또는 집에서 지내는 것을 개인이 선택하게 되는데, 다만 1,600유로까지만 정부지원이 가능함. 이곳 요양시설과 같이 시설에 입주하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경우의 어르신들이 일반적임.

Q. 김용술 의원

- 130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모두 월급을 받는지?
- 이 요양시설에 다른 곳과 차별되는 특별한 점은 있는지?

A.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

- 130명은 직원으로 월급을 모두 받고 있으며, 입주 어르신을 1:1이상으로 케어하고 있음.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심

- AWO 요양시설의 다른 점은, 이곳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 사람을 중시한다는 것임

Q. 김영섭 의원

- 이곳 요양시설에 의사는 몇 분 계신지?
- 가족 방문은 자유롭게 가능한지?
- 요양시설에 입주시 자부담이 있는지?

A.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

- 요양시설내 상주하는 의사는 없고, 필요시 요청에 의해 의사가 진찰을 옴

- 가족방문은 시설에 입주해 계신 환자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제라도 가능함

- 직장에 다니며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1,600유로가 넘을 경우 자부담을 내야 함. 이곳은 6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감

Q. 윤영희 의원

- 이곳에 입주해 계신 환자들 중 남녀 성비율은 어떠한지?
- 한국은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 아직도 정서상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은 정서면에서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

A.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

- 독일은 실버타운 들어가는 것이 70년 이상이 되어,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짐. 직장 다니는 자식이 집에 모시고 있으면 오히려 방치라는 생각을 함.

Q. 이경옥 의원

- 독일은 요양시설 종사원들의 급여나 처우가 어떠한지? 기피하는 직업인지?

A. 요양시설 매니저 Jasmin Jonedi

- 독일은 급여는 괜찮은 편이기에 돈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프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직업이라 기피함

<AWO 요양시설 관련자 간담회>

<AWO 요양시설 현장시찰>

암스테르담 스타트업빌리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9. 10. 1.(화) 10:00 ~ 12:00
- 방문장소 : 암스테르담 스타트업빌리지
- 참 석 자 : 디렉터 Erik Boer, 의원 9명
- 방문목적 : 첨단기술 및 과학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우수 창업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
- 방문내용
  - 환 영 사 : 디렉터 Diethardt stamm
  - 방 문 사 : 류명기 의장
  - 내　　용 : 방문기관 현황 소개 및 질의응답

주요브리핑 내용

❍ 기관현황

- 설　　립 : 2017. 4월

※ Amsterdam Science Park, ACE Venture Lab, UvA Holding 주도하에 설립

- 스타트업 빌리지는 암스테르담 사이언스파크 내에 조성됐으며, 암스테르담 대학 외 5개 대학, Nikhef 등의 과학 연구기관, Innovation Exchange Amsterdam(IXA), 인공지능 혁신센터, 암스테르담시 등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함(혁신기금 2,000만 유로)
- 지원하는 사업분야는 과학, 기술 관련 스타트업 사업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19번째, 암스테르담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스타트업 관련 센터임(2018년 네덜란드 최고 인큐베이터로 선정됨)
- 시설현황
  - 스타트업 빌리지는 총 40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세 종류의 크기에 따라(20피트, 20피트 더블, 40피트) 임대료에 차등이 있음
  - 모든 컨테이너는 절연처리와 함께 OSB합판으로 마감했으며 전·후방 유리창, 저전력 냉·난방 및 환기 시설 등을 갖춤
  - 컨테이너 렌트는 2년 이상 불가하며, 2년 미만은 자유롭게 가능함
- 기능·역할
  - 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터로, 학자, 기술자 등의 자문가를 두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지원
  -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곳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고, 기업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이곳을 문제해결 공간으로 이용
  - 과거에는 웹사이트 등의 창업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블록체인 등 사업을 다변화 하고 있음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류명기 의장

- 스타트업 빌리지 운영방법은?

A. 디렉터 Erik Boer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소개
  - 1단계 - Explore Program
    : 2일간 진행, 연중 7~8회 개설, 오리엔테이션 단계임
  - 2단계 - Incubation Program
    : 3개월간 진행, 연중 2회 개설, 10개 분야(단체)만 선정
  - 3단계 - Ready To Scale Program
    : 6개월간 진행, 일반 기업과 선정된 단체와의 컨택과정

  ※ 모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무료이나, 마지막 단계에서 선정된 단체가 돈을 벌거나 사업이 성공적이면 돈을 일부 받게 됨(페이백)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단계에서 선정된 10개 분야(단체) 중 매년 2 ~ 3개 정도가 성공인데, 현재까지 이곳에서 110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채택됨. 분야는 병원, 연구소, 기업 등

Q. 김용술 의원

- 암스테르담에 있는 대학만 참여가 가능한가?
- 참여자들의 숙소는 제공하는가?

A. 디렉터 Erik Boer

- 암스테르담 외의 대학도 참여가 가능함

- 이곳은 숙박은 제공하지 않고, 단지 사업을 위한 작업공간만 제공함

Q. 박찬길 의원

- 영구히 연구단지를 만들면 되는데, 왜 임시의 컨테이너에서 스타트업 빌리지 사업을 하는가?
- 학생들이 컨테이너를 빌리려면 돈을 내야하는데 능력이 안되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디렉터 Erik Boer

- 현재 암스테르담 스타트업빌리지는 사이언스파크에 10년 계약으로 임대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컨테이너는 빠른 시간에 설치가 가능하며, 공간 만드는게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로서는 스타트업 빌리지가 성공한 케이스이지만, 초창기에는 성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임. 다른 이유는 학생들은 영구적인 것보다, flexible하고 변화가 쉬운 것을 좋아하기에 컨테이너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

- 이곳은 사기업이기에 학생들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스타트업 빌리지에서 나가야 함

Q. 강수정 의원

- 스타트업 빌리지 운영비는 나라에서 지원하는지?

A. 디렉터 Erik Boer

- 스타트업 빌리지 설립에 150만 유로가 들었는데, 나라의 공적지원은 전혀 없고, 개인사업으로 은행에 대출해서 시작함.

Q. 김용술 의원

- 인큐베이팅 2단계에서 10개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왜 더 많은 팀을 선정하지 않나?

A. 디렉터 Erik Boer

- 10개팀 이상이 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개팀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함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관련자 간담회>

<스타트업 빌리지 현장시찰>

3. 주요시설 방문현황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 시찰

연수일시 : 2019. 9. 26.(목) 13:30 ~ 14:30

연수내용

❍ 기관현황

- 독일의 도시에는 마르크트할레(Markthalle; Markt=시장 Hall=홀, 넓은강당)라는 재래시장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데, 이곳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에는 80여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고기, 생선, 채소, 꽃 등의 상품을 판매중임.

- 독일의 대형마트에서 보기 힘든 시식 및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 및 부위 선별·제공 등 다양한 전략으로 소비자로부터 호평

- 천장이 높아 기존 전통시장의 답답하고 지저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며,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에서 물건을 주로 판매하고, 2층에서는 물건판매와 카페테리아가 있어 구매한 물건을 바로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및 활용방안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구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형매장의 편의를 포기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대형매장에 휴무일을 강제하면서 동네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으로의 유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과 같이 대형마트와의 차별화된 판매 전략(시식이나 특정부위만 선별판매 등)으로 고객의 마음을 공략하거나, 카페테리아 등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두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대형시장과의 차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됨.

❍ 관련사진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 시찰>

에센 졸페라인 현장시찰

연수일시 : 2019. 9. 27.(금) 16:00 ~ 18:00

연수내용

❍ 기관현황

- 에센은 루르공업지대의 대표적인 탄공도시로, 졸페라인은 1847년 ~ 1936년까지 세계 최대 탄광시설로, 폐광이후 정부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노력으로 현재는 새로운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

-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한 건축과 개조, 산재해 있는 문화시설, 탄광 가동 시기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한 갱도와 시설을 통해 중용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지난 150여년간 진행된 핵심 산업의 발전과 쇠퇴의 물리적 증거가 됨)

- 석탄세척공장은 루르박물관, 보일러실은 레드닷 뮤지엄, 컨베이어 벨트는 사용자 이동공간, 컨베이어 브리지는 보행자 산책로로 활용

- 연간 200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1,000여개의 일자리창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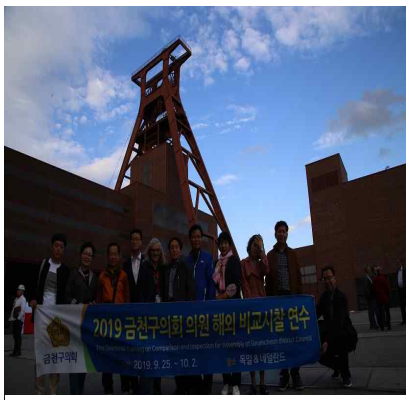
❍ 시사점 및 활용방안

- 에센 졸페라인이 폐광의 예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강원랜드의 예가 상기됨.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를 설립 목적으로 국가가 탄생시킨 기관임.

- 산업화 및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주요 산업인 탄광업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강원도 정선일대가 독일의 에센 졸페라인처럼 지역의 부흥을 노렸으나, 강원랜드만 부흥을 누리고, 정작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임.

-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계획)이 그 도시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에센 졸페라인처럼 옛 건물을 단순히 허물고 새롭게 짓는 형식의 도시개발이 아닌, 과거를 잘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함.

❍ 관련사진



<에센 졸페라인 현장시찰>

<에센 졸페라인 내부전경>

뒤스부르크 환경공원 현장시찰

연수일시 : 2019. 9. 28.(토) 08:30 ~ 10:30

연수내용

❍ 기관현황

-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은 1985년 폐쇄된 제철소 공장을 재활용한 독일 최대 규모의 환경공원으로 공원, 자전거 도로, 다이빙, 클라이밍, 하이로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센터임.

- 과거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할아버지, 아버지들에 대한 것을 후손들이 알게끔 과거의 유산인 제철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리모델링이 핵심

- 용광로안을 쉼터로 조성, 자재 나르던 철길은 산책공간, 가스 저장 탱크는 다이빙센터로 조성, 예전 사무실은 방문객을 위한 호텔로 조성하는 등 자연과 철강 구조물이 어우러진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 더욱 재미난 것은 각종 레저 시설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들이 놓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길 수 있으며, 공장 벽면에는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무엇보다 지역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방문객들에게 공장 지대의 역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 이곳의 관리는 뒤스부르크시에서 만든 환경공원 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유럽연합 지원금 등 일부 공적자금의 보조가 있으나, 대다수의 수입은 TV쇼 등 임대료로 인한 수익임. 연간 150만명 방문객이 있음.

❍ 시사점 및 활용방안

-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은 당초 만든 의도부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는데, 운영방식도 과거 실제 사용했던 시설, 설비를 그대로 둔 채, 그 공간을 대여하여 바(bar)로 활용하거나 파티장소로 활용함. 또한 용광로를 근사한 다이빙장소로 만드는 등 이색적이면서도 근사한 복합문화공간을 재창출 함.

- 하루에도 수십 개의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는 현대식 건축이 매우 편리하고 깨끗하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쌓이는 건축 폐기물도 굉장할 것임.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을 보면서 옛 가산디지털단지 공장들을 일부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됨.

- 공공 디자인이란 공간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과거의 유산도 충분히 아름답게 재창조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

❍ 관련사진

<뒤스부르크 환경정원 현장시찰>

로테르담 마르크탈 현장시찰

연수일시 : 2019. 9. 29.(일) 12:00 ~ 14:00

연수내용

❍ 기관현황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전통시장 재생모델로, 낡은 전통시장을 시장과 레스토랑, 아파트와 결합된 이른바 '마켓홀' 복합건물

(10만㎡)로 재탄생. 거대한 홀 내에는 LED 패널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이처럼 '마켓홀' 은 역사, 시장, 레저, 주거, 주차 등의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유형의 공공 복합빌딩임.

- 매장구성 : 지하2~4층(주차장), 지하1층(슈퍼마켓), 1층(96개 시장 점포), 2층(음식점, 카페 등), 3~11층(주거용 아파트)

- 총예산 : 1억7천5백만 유로

- 지하에는 화요일, 토요일마다 마켓홀 옆 광장에서 열리는 재래시장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1,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 상인들의 만족도 향상

❍ 시사점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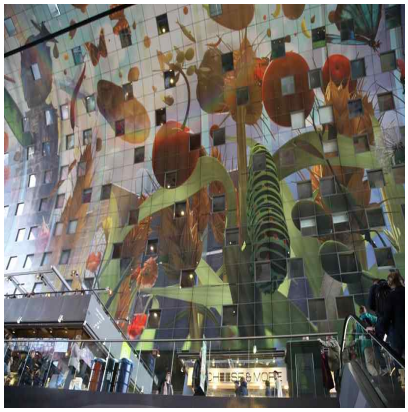
- 로테르담 마르크탈은 기존의 발상을 바꾼 컨셉과 창의적인 건축물로 로테르담의 랜드마크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관광상품으로써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 마르크탈은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측면, 건축을 통한 도시 랜드마크화 측면, 해당지역의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 등 다각도에서 고민을 담아냈다고 하는데, 시장측면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고기와 생선을 파는 전통적인 야외시장은 지붕을 덮어야 함) 만든 건물형 시장으로, 전통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과 매장 구성, 신선식품과 먹거리 중심의 시장 노점 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 푸드카페 등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 등을 고려한 매장으로 구성하였다고 함.

- 우리 전통시장인 대명·현대·남문시장 등을 활성화하려면 마르크탈과 같은 특별한 건축물을 설계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단순히 시장노점의 장점만 살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외부인 등이 재래시장도 즐길 수 있고, 원하는 음식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음식점도 입점 되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관련사진

<로테르담 마르크탈 현장시찰>



<마르크탈 내부벽화>

<마르크탈 공사 중 발견한 유물전시>

NDSM Amsterdam 현장시찰

연수일시 : 2019. 9. 30.(월) 10:00 ~ 11:30

연수내용

❍ 기관현황

- 1922년 조선소로 시작되어 유럽의 허브답게 왕성한 운영을 해오다 1984년에 조선소가 파업을 하게 되며 버려진 곳에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버려졌던 이곳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술, 공연, 축제가 가득한 암스테르담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잡음.

- 곳곳에 MTV, GREEN PEACE, HEMA, RED BULLL 등 업무용 건물과 힐튼호텔이 지어졌으며, 문화, 예술중심의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힘.

- 이전의 정부 주도의 재생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전 형식의 재생사업을 시도하고 이러한 형식을 통해 지역 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차용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함께 공모한 것임.

❍ 시사점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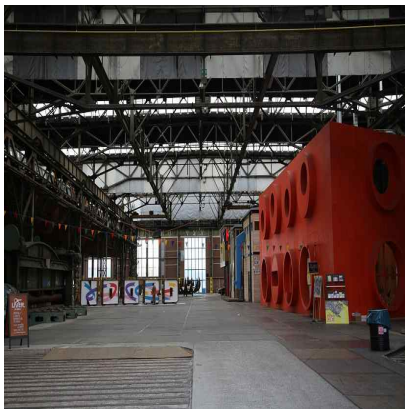
- 최근의 도시개발은 이전의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에서의 물적 기반 정비를 넘어 지역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기능 개선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으로 변화하는 추세.

-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문화 소비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구도 점차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문화재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NDSM 성공사례를 보면서 독산동의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금천예술공장의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

- 단순히 입주한 예술가들이 창작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기능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관련사진

<NDSM Amsterdam 현장시찰>



<NDSM Amsterdam 내부>

네덜란드 도심/수변녹지 탐방

연수일시 : 2019. 10. 1.(화) 13:30 ~ 16:00

연수내용

❍ 네덜란드 도심 현황(자전거)

- 네덜란드는 국민 1인당 자전거 보유율이 최고이며, 자전거의 교통분담률도 2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 그 이유는 자전거를 타기 적합한 도로환경 및 법규를 들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자전거를 위한 인터체인지와 터널이 따로 존재함.

- 1950 ~ 60년대 폭발적인 자동차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그 시기부터 환경보호와 자전거를 위한 교통법규 등을 만들고 현재의 자전거 나라 네덜란드가 생겨남.

❍ 네덜란드 수변녹지 현황

- 16~17세기 암스테르담은 해상무역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네덜란드의 중심으로서, 암스테르담의 도시공간은 항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전해 옴. 그러나 심화되는 주택난과 업무공간의 수요증가는 시가지 확산이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개발여건이 좋은 남동측 방향으로 시가지 확산을 진행하여 이스턴 하버(Eastern Harbor) 지구가 탄생함.

- 이스턴 하버 지구는 원래는 교통의 중심이었으나 항구로서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졌고, 1947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도시계획 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일부는 도심인접형 수변문화레저도시로 재생함.

- 노후항만의 재생은 수변공간에 맞닿아 있어 건축물과 같은 경관 요소의 디자인이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라 판단, 여러 창조적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랜드마크 성격의 건축물을 세웠으며, 워터프론트(수변공간)을 녹지공간처럼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여 질 높은 도시공간을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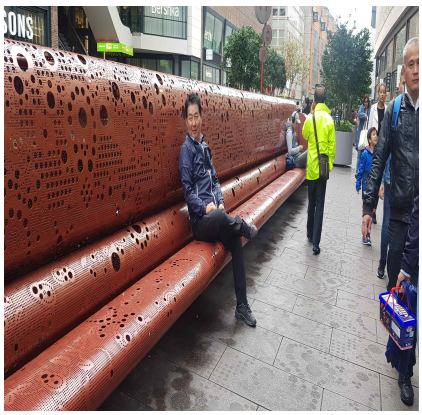
❍ 시사점 및 활용방안

- 서울시도 따릉이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이용율이 그리 많지는 않음. 네덜란드의 자전거 정책과 문화를 보면 우선 도시 설계자체가 자동차는 불편하게, 자전거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어릴때부터 자전거를 학교에서 배우게 하고, 면허증도 발급하고, 다양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함. 우리구에서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필수라 사료됨. 우리지역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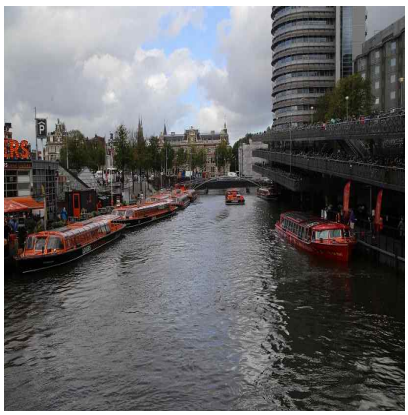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수변공간 활용을 보면, 기존에 창고로 쓰였던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아트숍, 디자인숍 등으로 변경하여 주거·문화복합용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킴. 이와 같이 우리구의 낙후한 지역을 주거와 문화가 복합된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꿀 때, 네덜란드의 도시재생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

❍ 관련사진



<네덜란드 지하철외벽 의자겸용으로 제작>

<네덜란드 자전거 & 스쿠터 대여장소>



<네덜란드 수변공간>

4. 주요시설 외관 참관

반슈타트 패시브 하우스, 큐브하우스

연수일시 : 2019. 9. 27.(금) 11:30 & 9. 29.(일) 17:00

연수내용

❍ 반슈타트 패시브 하우스

- 2008년 하이델베르크 시의회에서 에너지 컨셉을 갖는 주거, 사무, 산업, 과학, 상업, 교육 복합단지 건설계획을 수립, 시와 개발업체(EGH)는 버려진 구 화물역사 부지를 주거단지, 사무실, 대학 연구시설, 대학 기숙사, 공공유치원, 호텔, 공원, 문화센터 등으로 개발, 세계 최대규모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임.

- 하이델베르그는 독일 정부와 시의 지원 아래 주택의 2%를 패시브 하우스로 신축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함. 또한 92년부터 환경보호 컨셉으로, 시에서 짓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 하우스로 계획되고 있으며, 시 소유의 270개 건물에 센서를 달아 15분마다 에너지 사용량 체크를 한다고 함. 미세먼지, 원자력에너지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 입안하고, 우리구에서 짓는 공공건축물이라도 패시브 하우스처럼 재생에너지 공급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큐브 하우스

- 건축가 피트 블롬은 로테르담의 블락 역에서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다리 위에 주택을 세움. 큐브하우스는 38개의 입방체 형태 주택으로 54도 기울어졌고, 바닥부터 위를 향해 육각기둥이 세워짐. 블롬은 각각의 입방체 집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 구조를 나무집으로 이뤄진 '추상적인 숲'이라고 개념화함. 삼각을 이루는 아래층은 가사공간, 중간층은 침실과 욕실, 꼭대기는 주거공간임.

- 큐브하우스는 로테르담의 랜드마크가 되어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쇼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물론 큐브 하우스 하나만으로

관광상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창의적인 건축, 전략적인 마케팅은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

<큐브하우스>

169클뤼스하우즌 발리스블록

연수일시 : 2019. 9. 29.(일) 09:30 ~ 10:30

연수내용

❍ 로테르담 서쪽에 위치한 스팡언 지역은 오래전부터 범죄율도 높고, 마약 거래, 매춘 등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음. 시에서는 재개발지역으로 스팡언을 선정, 이곳 부동산을 사들여 고친 후 파는 방식으로 환경 개선을 꾀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해당 지역 주택 60%를 사들이느라 시 재정만 악화됐음. 그 와중에 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169 클뤼스하우즌 발리스블록' 프로젝트였으며, 1유로만 내면 집을 주겠다는 것이었음. 조건은 2년 내 직접 자신의 집과 공동공간을 직접 돈을 들여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이며, 로테르담시가 내건 파격적인 제안에 건축가, 예술가 등 42가구가 참여했음.

❍ 입주자들은 건물 외벽 보수부터 공용 공간인 정원 리모델링, 입주 가구별 공간 배치까지 모두 함께 결정하여 진행했고, 3년후 공용

공간인 정원을 둘러싼 42개의 다양한 주택 공간으로 바뀌면서, 현재 매매가격은 2배 이상 올랐으며, 최근에는 다른 도시에도 ‘제2의 클뤼스하우즌’ 프로젝트가 한창임.

❍ 최근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클뤼스하우즌 발리스블록 사례를 보면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의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형성이 아니라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해 지속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169 클뤼스하우즌 발리스블록>

5. 문화탐방

이준열사 기념관

연수일시 : 2019. 9. 28.(토) 15:30 ~ 16:30

연수내용

❍ 이준 열사 기념관(Peace Museum)은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가

1907년 당시 이준 열사가 체류하다 순국한 호텔(Hotel De Jong)을 1995년 8월 5일에 구입, 이를 개조하여 설립함. 설립목적은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릴뿐만 아니라, 민족후대와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 평화, 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삼기 위함.

- 열사는 그 당시 헤이그에 개최중인 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섭, 이위종 두 분과 함께 한국 대표로 오시고, 현재 기념관 건물에 머물며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고 국권회복에 애쓰셨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뜻을 이루지 못함.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 란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국인의 기개를 세계에 알림

- 이준열사 기념관 전시내용 : 이준 열사의 친필 이력서 등 유품, 만국평화회의 한국자료, 이상설·이위종 등의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음

- 이준열사 기념관 전시물을 보며,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열사들의 애국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게 되었고, 해외동포가 열사의 깊은 애국심에 감명받고 수십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이준열사 기념관을 설립하며, 부족한 정부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애국심과 인류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됨.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하이델베르크 고성, 잔서스한스(풍차마을) 문화탐방

연수일시 : 2019. 9. 27.(금) 09:30 & 9. 30.(월) 14:00

연수내용

❍ 하이델베르크 고성

- 1225년 팔츠백 오토 비텔스바흐가 축조. 당시의 성은 현재의 성보다 더 높은 산허리에 있었는데, 1537년 낙뢰(落雷)로 파괴된 뒤 현재의 자리에 옮겨짐. 그 후 30년 전쟁을 비롯한 잇단 전란으로 황폐해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됨. 오랜 기간 축성하다 보니, 독일-네덜란드 르네상스풍의 성관과 중세풍 성새의 일부가 혼용되어 있음.

-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하이델베르그성은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었는데, 복원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적 논쟁이 이루어 졌고, 결론은 현재까지 부서진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 이에 반해 한국은 빠른 성장·발전을 이루면서 파괴된 것은 무조건 새롭게 축조하고,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고고학적 유물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형편인데, 하이델베르크성을 본보기로 삼아 역사문화의 신중한 원형 복원과 더불어 옛것과 현대와의 조화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잔서스한스 풍차마을

- 잔서스한스는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네덜란드의 명물인 풍차와 양의 방목으로 유명. 과거에는 700개 넘는 풍차가 있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거의 사라지고 현재는 야외 박물관에

보관중인 관광용 풍차 4개만 남음. 풍차박물관 이외에도 시계 박물관과 제과점, 치즈 공장, 나막신 공장 등이 있음.

-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풍경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더불어 네덜란드의 주요 생산품이었던 치즈와 나막신 등의 제작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하이델베르크 고성 문화탐방>

<잔서스한스 풍차마을 문화탐방>

V 연수총평

❍ 당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독일 및 네덜란드 두 선진국의 도시재생, 친환경 에너지 사업, 복지정책, 청년일자리 활성화 등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우리구에 적용방안에 대한 고찰이 가능했음.

❍ 먼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독일의 에센 졸페라인을 보면, 버려진 폐광을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문화 복합단지로 탈바꿈시켰고, 연간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 기존의 낡은 시설을 단순히 허물고 새롭게 짓는 형식의 도시개발이 아닌 과거를 잘 활용하면서 현대식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역사적이면서 창의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문화적 접근의 도시재생(도시건축)의 필요성을 느낌. 폐광과 관련하여 과거 파독 광부들의 노고와 인내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구의 산업관광, 시흥행궁, 한우물 등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함.

❍ 도시재생 관련 두 번째 시찰대상으로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의 경우, 폐쇄한 제철소를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박물관, 이벤트존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함. 과거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우리의 부모세대를 기억하도록 옛 제철소의 시설을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주민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재창출하고 이로 인해 도태된 산업지역의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점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임. 금천구에도 환경(녹지주변)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적용이 필요할 것임.

❍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독일 헤센주 중앙에너지협동조합을 방문한 결과, 독일은 한국보다 17년 앞서 탈원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협동조합의 수가 900여개로 시민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연방정부로 이어지는 상향식 환경운동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알게 됨. 태양열·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장·단점이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더 이상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환경을 보다 생각하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독일 등의 선진국과 금천구의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으나(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태양광패널 설치가 어려우며, 산림을 훼손하고 태양광 설치 시 장마철 산사태의 우려),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책을 강구하겠음.

❍ 신재생 에너지의 다른 우수사례로 탐방한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는 버려진 구 화물역사 부지를 재개발을 통해 세계 최대규모 패시브하우스 단지로 개발한 곳임(※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수동적(passive)인 집' 이라는 뜻으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하우스에 대응하는 개념). 도시재생과 에너지정책을 아우르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 삼아 노후주택이 많은 금천구의 도시재생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복지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프랑크푸르트 AWO 요양원은 양로원, 노인주택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종합노인시설로, 입주 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개인적인 요양의 책임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노인요양시설은 단순히 노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닌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함.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노인공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인세대를 편안하게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금천구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유통망의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였음. 다만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은 천장이 높아 기존 전통시장의 답답하고 지저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며, 대형마트와의 차별화된 판매전략(시식이나 특정부위만 선별판매)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 등의 휴게공간을 두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함.

❍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두 번째 시찰대상으로 로테르담 마르크탈은 거대한 말발굽 모양인 아치형으로 설계된 주상복합 건축물로 식료품 시장, 레스토랑, 1,200대 규모의 주차장, 아파트 등이 결합된 복합건물로 로테르담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엄청난 예산이 들기에 마르크탈과 같은 특별한 건축물을 우리구에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우리의 전통시장들을 활성화 하려면, 마르크탈의 전략처럼 단순히 시장노점만 입점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외부인 등이 재래시장도 즐기면서, 원하는 음식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음식점이 입점 되도록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고찰을 위해 방문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빌리지는 40개의 컨테이너와 다양한 회의실, 이벤트 공간 등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대해 주고, 과학과 기술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창업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공간임. 정부의 보조금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시 수익의 일정부분을 페이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적지원이 바탕이 되는 한국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과는 구조적으로 다름. 창업지원센터의 성공여부를 알지 못하기에 정형화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flexible하고 변화가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스타트업 빌리지의 운영노하우는 금천구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년 창업 지원시 정부의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끝.